

월요광장

## 17세기 호남 학자 송암 기정익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대제학을 지낸 당대의 학자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은 문장가로서도 천하에 이름이 높았다. 그는 그의 문집 '잡저(雜著)'에서 '호남의 상도(上道)에는 일재(一齋)가 있었고 하도(下道)에는 고봉(高峰)이 있었으나 견재(健齋) 김천일(金千鎰)만이 일재를 이었을 뿐 학문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항(李恒)과 기대승(奇大升)만 한 학자가 호남에서 이어져 오지 못했음을 애석하게 여긴 글을 남긴 것이다. 일재나 고봉과 동시대에 국가를 대표하던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가 있었으나 51세라는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니, 16세기 후반에는 일재와 고봉만이 실존했던 까닭에 하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견재 김천일은 학문도 높았지만, 임진왜란에 의병대장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

을 바친 충신으로도 세상에 크게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항의 문하에는 김천일만 있었다고 거론했지만, 학문으로는 일재에 버금가고 또 의병장으로도 활동했던 금강(鎭江) 기효간(奇孝謙, 1530~1593)이 있다. 금강은 일재와 하서의 두 분 문하를 출입한 당대의 학자였다. 기대승의 5촌 조카로 기씨 가문의 학문적 전통을 이어 그의 현손(玄孫) 송암(松巖) 기정익(奇正翼, 1627~1690)에게 학문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기효간이었다. 기대승은 광주에서 살았고 기효간은 장성에서 살아 광주기씨, 장성기씨의 초창이 있는데 기씨 가문은 호남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학자가 많은 명문 집안으로 알려졌다. 기정익의 현손이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이고 그의 손자가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이니 그들의 뛰어난 명성은 비길 데 없이 높았다.

송암(松巖) 기정익은 당대의 학자 우암 송시열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다. 송시열 학단의 수많은 친구와 학문을 토론하고 경학 연구에 생애를 바쳤었다. 동문의 친구로는 명재(明齋) 윤증(尹鼎)과 가장 가깝게 지내며 수많은 편지를 통해 학문 토론을 이어 갔으나, 뒷날 송시열과 윤증과의 갈등이 커지자 윤증보다는 송시열의 입장을 지지했던 사람이 기

정익이었다. 당시 17세기의 호남에는 하서·고봉과 같은 대학자는 많지 않았지만, 백운 유세악·우현 박상현(1629~1693) 등 대단한 학자들이 광주에서 활동하였다. 기정익은 이들과 막역한 사이로 호남의 유학 발달에 기동의 구실을 하고 있었다. 우현 박상현의 아들이 당대를 대표하던 학자 손재 박광일(1655~1723)이었으니 손재는 기정익을 스승으로 모시며 많은 학문 토론을 계속했었다.

특히 기정익이 살아가던 시대는 그야말로 학문이라면 성리학(性理學)이어서 기정익은 송시열·윤증·박상현·박광일 등과 끝없이 성리학 논쟁을 벌이는 편지를 계속 주고받았었다. 뒤에 기정익을 이어 호남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의 반열에 오른 박광일은 기정익의 행장(行狀)을 지어 그의 학문과 생애를 유감없이 후세에 전해 주고 있다. 행장에 의하면 기정익은 경학(經學)과 성리학에도 뛰어났으나, 특히 경제학(經世學)에도 높은 업적을 남겼다면, '정정의'(井田議)라는 논문이 유명하다고 하였다. '송암문집'에는 '사의정진'(私議井田)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국가 경제의 주요 분야인 토지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잘 밝혀져 있다. 성리학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가의 정치와 경제에 마음을 기울이는 학자로서

의 면모를 그린 데서 알게 된다.

박광일은 기정익의 학문과 사상을 평가하면서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의 인물이나 역량이 탁월하여 당대의 명사들이 기정익은 '호남일인'(湖南第一)이니 '호남제일인물'(湖南第一人物)이라고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전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기정익의 학문·사상·인물의 영향으로 후손에서 노사 기정진이나 왔음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인간 세상 예전 역시 열매·학맥의 영향 아래 뛰어난 학자나 사상가가 나오기 마련이다.

정조때에 대제학에 좌의정을 역임한 당대의 학자 몽오 김중수(1728~1799)는 기정익의 묘표(墓表)를 지어 16세기의 찬란하던 호남 유학계에 끊어져 가던 학문을 자력으로 일으킨 공로를 크게 찬양하고 있다. "호남은 옛날에 학문으로 이름이 높았다. 그러나 기정익의 시대에는 거의 끊어지던 때인데, 공께서 자력으로 끊어지던 학문을 이었다."(湖南古以文獻名而及公之時則幾乎絕矣乃公起於絕學之餘自力爲學) 이는 17세기 호남 유학이 기정익의 공으로 전통을 이어 오게 되었다는 칭송이었다. 그렇다. 송암 기정익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만, 그가 17세기 호남의 대표적 학자였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 기고

### 광주시의 아쉬운 5월 인식



이성준  
송원대 교수·북한학 박사

(타임즈 1980.5.23)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타임즈는 미국이 아닌 영국의 언론이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 해당 기사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어도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참 안타깝다. 왜 수정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중하게 묻고 싶다. 코로나 19 사태로 기록관 전시실은 임시 휴관 중이다. 휴관 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문을 여는 오는 14일에는 수정된 내용을 광주 시민들이 보기를 원한다.

다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해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다. 그중 한 가지로 교도소 습격 사건도 포함된다. 그래서 지난 2월 11일 광주시청에서 민주인권평화국장과 5·18 선양과장을 만나 당시 교도소와 강남로 항공 사진 등을 정중하게 요청 드렸다. 찾아온 후 연락을 하겠다고 하면서 흔쾌히 지원을 약속하였다. 정말로 감사할 일이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지난 2월 20일에 국장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전화로 드렸으나 "회의 중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만 들어온다. 저도 "예, 시간 되실 때 전화 부탁 드립니다. 이상

출 올림"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교도소 및 강남로 항공 사진 등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전일빌딩과 관련된 사항이다. 전일빌딩은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이 뜻 깊은 장소가 리모델링을 하여 4월 중 재개관을 앞두고 있다. 정말 들던 중 반가운 소식이 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전일빌딩 245'라고 하는 간판이 딱하니 옥상 두 곳과 1층 외부 한 곳 등 총 세 곳에 부착되어 있다. '전일빌딩 245'는 도로명 주소와 이곳에서 발견된 탄흔 숫자가 245개인 점 등을 고려해 새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발포 사실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좋은 생각이지만 진상 규명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여러 곳에 의견을 수소문하였지만 별로 관심이 없다.

지면 관계상 진상 규명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제목 위주로 제시하면 작전 간 전일빌딩 탈취와 245발의 인과 관계, 헬기에서 M60기관총으로 전일빌딩 사격 때 사격 발수와 헬기의 인과 관계, 축소된 245발 헬기 사격의 의미,, 향후 발견되는 사격 흔적 등 많은 사항이 진실 규명과 연

계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에도 광주시는 헬기 사격의 끝이 아닌 사격 탄흔의 발견이 된 시작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겠다고 할 뿐이다. 정말 불통의 극치다. 여기에서 진상 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체히 제시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인 광주시와 전문가 집단 등의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제라도 기존의 전일빌딩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에 눈코 뜰새 없겠지만 2억 원을 들여 제작한 간판 비용과 홍보 자료, 전일빌딩 245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수정 등 실무자의 번거로움 때문에 수정이 곤란한 것인지, 아니면 전일빌딩과 관련된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번 기회를 통해 5·18 기념재단 창립 선언문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싶다. "5월은 광주의 것도 구석자, 부석자, 유가족의 것도 아니고 조국의 것이고 전체 시민과 민족의 것이라는 것"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올바른 자세로 광주의 5월을 바라볼 수 있는 40주년이 되었으면 한다.

## 기고

###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공감'과 '협력'



최성훈  
육군보병학교 교관

현대 의학이 발달하기 전,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는 각종 전염병이었다. 의학의 놀라운 발전으로 전염병을 과거의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계화 시대에 국가 간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있고 있던 전염병의 반격이 활발해졌다. 이로 인해 WHO(세계보건기구)는 21세기를 '전염병의 시대'라고 규정하였다.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은 최근 100년 동안 스스로 변종을 만들어 내며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전염병은 '스페인 독감'이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1918년 장결해 2년 만에 당시 세계 인구 16억 명 중 6억 명이상이 감염되었고, 최소 2500만 명에서 최대 1억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통계 연보에 의하면 '스페

인 독감'이 한반도에 상륙하여 '무오년 독감'으로 불리웠다. 당시 조선인 1700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750만 명이 감염되어 14만 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첫 환자가 나온 지 불과 두 달 만에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으로 중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확진자는 8만여 명이며, 사망자 또한 26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15년 27개국 2494명의 감염자와 858명의 사망자를 낳았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와 비교해도 파급력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처럼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봉쇄와 유입 차단을 통해 시간을 버는 것이다. 시간을 벌어야 바이러스의 정체를 확실히 파악해서 치료제도 테스트하고 바이러스를 분리해서 연구도 하고 진단 시약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 첫 번째 대책은 성공적이었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진단 시약을 개발했고, 이를 통해 하루 최대 5000건에서 7500건까지 6시간 이내에 검사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다.

두 번째는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감염 단계에서의 대응이다. 특정 지역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말한다. 이때는 발생 지역에서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을 분류하고 중증 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전파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향후 1~2주가 코로나19의 차단 여부를 가능할 수 있는 기간이 될 것이다.

셋 번째는 대유행 또는 팬데믹(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는 사태, pandemic) 단계로 실질적으로 마지막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이 단계가 되면 일반적인 방역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통 대유행까지 가면 그 기간에 바이러스의 독성이 약화된다. 멀리 퍼지려면 독성이 약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코로나19 또한 매년 겨울이면 죽지 않고 돌아오는 하나의 약한 병으로 전락될 것이다. 물론 치료제도 개발되어 사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할까? 이번엔 대구·경북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확진자의 대부분이 특정 종교의 신도들이었다. 좁은 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오랜 시간 예배를 보고, 예배 전후에 얼굴을 마주 보며 인사하

는 시간이 길다. 결국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주변으로 순식간에 전파될 수 있다. 이렇듯 종교 시설의 안팎을 밀접 접촉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급적 많은 인원이 모이는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자주 손을 씻고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며 기침 예절을 준수해야 한다. 유럽에서 흑사병이 발생하였을 때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손을 자주 씻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유대인들이 병을 퍼뜨렸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위협을 당하면 항상 '외부의 적'을 찾았다. 대중은 '포비아(공포증)'로 무장해 외부의 적을 만들고 비난하는 행위를 정당화한다. 하지만 이는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중증 환자들이 비난받기 싫어서 밖으로 안 나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이다.

결국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혐오,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공유와 공감, 협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서로를 향한 힐난과 비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려움을 이해하며 함께 나누는 따뜻한 연대의 손길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 社說

### 불철주야 사투 의료진 치료 전념할 수 있도록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백 명씩 늘어나면서 어제부로 4000명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방역 최전선에서는 의료진 등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의사·간호사들이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으며 방역 담당 공무원이나 119 구급대원들도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온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인 조선태병원 읍담병실을 담당하는 25명의 간호사들은 한 달 가까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두 시간여 동안 방호복을 입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는데 체력 소모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한 각 구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심 환자의 증상 체크와 검체 채취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환자가 물리던 점심을 먹을 짬조차 없어 간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일상이 됐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도 24시

간 코로나 검체 분석에 매달리고 있는데, 한 달째 간이침대에서 쪽잠을 잔다. 119 구급대원들 역시 환자 이송에 쌓이는 피로는 차치하더라도 현장 출동 시 감염 위험을 감수하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광주 지역 의료계는 확진 환자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에 대한 의료 지원에 나섰다. 광주시의사회는 서정성 남구의사회장을 단장으로 의사, 간호사, 행정·방역 요원 등 여섯 명의 '달빛의료지원단'을 지난 28일 대구에 파견한 것이다.

코로나 방역 현장은 감염 가능성이 높은 데다 평상시보다 훨씬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극한의 일터다. 그곳에서 밤낮없이 분투하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의 노고가 있어 그나마 지금 이 정도의 방역망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치료와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호복과 마스크 등 장비라도 때맞춰 적극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 아니겠는가.

### 코로나 확산 차단 개신교계 협조 절실하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를 보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31번 환자가 다닌 대구 신천지 교회가 슈퍼전파자로 급부상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18일 대구 지역 첫 확진자가 된 이환자는 교통사고로 입원 중 코로나 19 의심 증세인 고열과 폐렴 증상을 보였으나 검사도 거부한 채 대구 신천지 교회를 두 번이나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근까지 급속히 확산되면서 현재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신교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는 이미 모든 모임을 중단하는 대응적 결단을 내린 바 있다. 천주교에서는 안동교구가 미사를 처음으로 중단한 이래, 26일 제주와 원주교구까지 마지막으로 동참하며 236년 천주교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성당의 미사를 중단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역시 모든 법회를 전면

중단했다. 원불교도 다음 달 8일까지 대중이 모이는 법회와 기도를 중단했는데 이는 1916년 소태산 박종환 대종사가 원불교를 개교한 이래 10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비해 개신교계 일부는 아직도 주말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광주 지역만 하더라도 일부 대형 교회들이 정부의 주일 예배 자제 요청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주일 예배 헌금이 교회 재정에 큰 역할을 하는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신자들을 비롯한 전체 국민의 건강이다.

이미 신천지 교회의 예에서 확인된 것처럼 강력한 전염성으로 하루에도 수백 명씩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모여 예배를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다. 코로나 19와의 사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일부 개신교계의 협조가 절실하다.

## 無等鼓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984년 교주 이만희에 의해 창립된 신천지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한자어에서 비롯됐다. 정식 명칭은 '신천지에수교 증거장막 성전'인데 '증거장막'이란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상을 보고 듣고 증거 하는 장막을 뜻한다고 한다.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집이다.

기독교와 천주교로부터 신천지가 이단으로 규정된 것은 '교주 이만희는 곧 보혜사'라는 교리 때문이다. 원래 '보혜사'(保惠師)란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주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 게다가 '우리에 계만 구원이 있다'는 폐쇄적이고 편향적인 종교관 때문이기도 하다.

신천지가 '슈퍼 전파'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주 이만희의 사교와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볼수 없다. 종적마저 모연한 그는 얼마 전 온라인을 통해 '금번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함을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짓'이라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

천지 성장과 코로나 집단 감염은 조직적이고 은밀한 포교 방식이 주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기존 교회에 잠입해 신자를 '추수'하는 방식,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접근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얼마 전 신천지 교회의 전도 방법이 형법상 사기 및 협박에 가깝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달 14일 판결문에서 "어느 정도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이후 신천지라는 것을 밝히는 형태의 전도 방법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 우리 헌법과 벌칙서 가 허용하지 않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최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표는 코로나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특정 교단에 대해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내놓아 논란이 됐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전도사 경력에 있는 황 대표는 정부에 대해서 매물차게 비판하면서도 신천지에 대해서 '특정 교단'으로 두둔했다. 신천지를 신천지라고 말하지 못하는, 오로지 선거 표만 의식하는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을 보면 씁쓸할 뿐이다.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 신천지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국내(국독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